

430장 -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2026년 5월 14일(목)

이른아침예배

- 1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난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 2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 길로 가겠네
 - 3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 하는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 4 옛 선지자 예복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 갈때까지 주와 같이 걸겠네
- 후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인도 : 황지원 목사

- 예배를여는말 인 도 자
-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같 이
- 찬 송 430장 다 같 이
- 기 도 이기형 안수집사
- 성 경 봉 독 신명기 22:1~4절 인 도 자
- 찬 양 내 혼아 잠잠하라 새벽찬양대
- 설 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합시다』 황지원 목사
- 기 도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다 같 이
- 찬 송 218장 다 같 이
- 축 도 설 교 자

218장 - 네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 1 네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 2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맘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 3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 오늘의 말씀 < 신명기 22장 1~4절 >

1 네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체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네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2 네 형제가 네게서 멀거나 또는 네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네 집으로 끌고 가서 네 형제가 찾기까지 네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 줄지니 3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체하지 말 것이며 4 네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체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기도 담당

5/12(화)	5/13(수)	5/14(목)	5/15(금)	5/16(토)	5/18(월)
석승진 재적안수집사	류진학 안수집사	이기형 안수집사	김홍봉 안수집사	박성원2 안수집사	김성재1 안수집사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26년 5월 14일(목)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호흡을 이어가게 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허락하신 주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봅시다. 이웃의 어려움을 못 본 체하고, 내 유익을 먼저 계산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작은 선행과 섬김으로 이웃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응답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선한 빛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새문안교회를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사, 주님의 은혜가 교회 담장을 넘어 온 세상을 물들여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셔서 맡기신 사명을 충성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당회와 제직, 모든 성도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한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주님! 이 땅과 열방을 주님의 자비로운 손에 올려드립니다. 곳곳에서 계속되는 전쟁과 폭력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미움과 보복의 악순환이 멈추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화해와 평화의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랜 분단 가운데 신음하는 북녘 땅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굳게 닫힌 마음과 길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열리게 하시고, 복음의 소망과 참된 자유가 그 땅 가운데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